

구약논찬

제 17권 2호(통권 40집) 2011년 6월 30일

신 우철(연세대) 고대 신전재건의 계시를 통해서 본 학개서의 목적 145

이 논문은 고대근동의 신전재건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인 계시의 관점에서 학개서 저술의 목적을 분석한다. 저자는 고대근동에서 신전재건이 신의 계시가 왕에게 전달되어 왕이 동의한 이후 착수되었으며, 따라서 신전은 왕이 재건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이 관점에서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의 선포가 다윗왕가의 잠재적 계승자인 스룹바벨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학개에 의하면 야훼의 계시가 스룹바벨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페르시아의 신전이 아닌 야훼의 신전이 되는 것이다.

Shin, Woo Chul The Purpose of Haggai in light of 'Revelation,' ANE's Temple
Rebuilding Ideology 145

고대근동 신전재건의 계시를 통해서 본 학개서의 목적

신 우철 | 연세대 강사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본 논문의 목적은 고대근동의 신전재건 과정에 나타난 이데올로기를 통해 학개서 저술의 목적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왜 다리우스 2세(520 BCE) 시기에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학개서는 이 질문에 응답하는 포로기 이후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학개의 설명(1: 1-3, 2: 6-9, 20-23)에 대해 서로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 학개가 다리우스 즉위 초반 제국 전반에 걸쳐 발생했던 반란에 동참하기 위해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즉, 학개는 페르시아 왕실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나타나 혼란을 유다 독립을 위한 기회로 해석했다는 것이다¹⁾. 따라서 학개는 열방에 대한 야훼의 신탁(2: 6-9)을 선포했으며, 다윗

1) 비교적 초기의 주장으로 A. T. Olmstead,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135-142쪽; J. Morgenstern, “Two Prophecies from 520-516 B. C.,” *HUCA* 22 (1949, 400-414쪽) 등이 있었고 P. R. Ackroyd, *Exile and Restoration: A Study of Hebrew Thought of the Sixth Century B. C.* (London: SCM, 1968, 165쪽)에 의해 반박되었지만 최근 H. Barstad가 또 다시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Haggai Among the Prophets: An Example of Prophetic Continuity in the Hebrew Bible,” *Sara Japhet Festschrift*, M. Bar-Asher et. al.(eds.), (Jerusalem: Bialik Institute 2007), 265-283쪽.

왕가의 후손으로 유다에 총독으로 파견된 스룹바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2: 20-23). 둘째,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페르시아 제국 정책의 일환으로 페르시아 왕실의 지원을 받아 재건되었다는 주장이다²⁾. 이 주장은 학계 내의 증거보다는 외부의 증거에 근거한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본래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인가되었고, 고레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옮겨다 놓은 성전의 기명을 내어줄 뿐 아니라 황실의 국고까지 지원하여 성전 재건을 후원하였다. 하지만 유다는 일부 동족의 반발과 주변국의 방해 때문에 다리우스 시기까지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고레스의 정책을 승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도록 협력하였다³⁾.

본 논문은 이 질문을 새로운 관점에서 대답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고대근동의 일부로서 성전 재건에 관해 유사한 사상을 공유⁴⁾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대근동에 나타난 신전 재건 과정의 요소가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정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에 제기한 문제를 고대근동의 신전 재건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답하려 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신전 재건의 '계시'라는 항목⁵⁾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계시의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학개서 선포의 대상(수용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고대 근동에서 신전 건축/재건의 주체는 왕이며 신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궁극적으로 왕에게 전달한다⁶⁾. 우리는 신전

2) 대표적 학자로 C. L. Meyers와 E. M. Meyers를 들 수 있다. *Haggai, Zechariah 1-8*, (AB, 25B), (New York: Doubleday, 1987)은 이 관점에서 주석한 대표적 주석서이다. 또한 J. P. Weinberg의 'Citizen-Temple Community' 이론도 이 분야의 대표적 주장에 속한다. Weinberg가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은 *The Citizen-Temple Community* (JSOTSup 151), D. L. Smith Christopher(tra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에 번역 수록되어 있다.

3) 세부적 논의는 P. R. Bedford, *Temple Restoration in Early Achaemenid Judah* (Leiden: Brill, 2001), 185-237쪽을 참조하라

4) Richard E. Averbeck, "Sumer, the Bible, and Comparative Method: Historiography and Temple Building," *Mesopotamia and the Bible*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89-125쪽. 특히 120-121쪽의 요약을 보라.

5) Richard E. Averbeck("Sumer, the Bible, and Comparative Method: Historiography and Temple Building," 119쪽)가 요약한 항목 no. 3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6) 2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고대 근동의 신-왕권 이데올로기에 의해 왕만이 신전을 건축/재건할 수 있으며 왕은 사전 혹은 적어도 사후에 신전 건축/재건이 신의 뜻/의지였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신의 계시는 꿈에 의한 직접 계시(신-왕)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제 3의 매개체(정조, 어머니의 꿈[나보니두스와 아다드 구피] 등)를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혹 이러한 계시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재건의 주체가 왕이며, 신의 계시가 직간접적으로 왕에게 전달된다고 이해한다. 이런 이데올로기 하에서 우리는 왕 혹은 이에 준하는 인물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이 중심(주체가 되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설명(주로 에스라서)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는 다리우스 2년이라는 시기에 성전 재건(7)이 시작되었다면 이곳(학개서)에서 성전 재건에 관한 야훼의 계시가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대의 왕 혹은 잠재적 왕권 계승자에게 전달되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고 이 가정을 “계시”라는 항목을 통해 검증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은 학개서 성전 재건 기록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 고대근동의 신전 건축 및 재건 비문 가운데 i) 주전 3000년대 말에 기록된 구데아 실린더 A, B⁸⁾와 600 BCE 경에 기록된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신전 재건 비문 중 ii) ‘나보폴라사르(Nabopolassar) 비문,’ iii) ‘느부갓네살 2세 비문,’ 그리고 iv) ‘나보니두스 비문⁹⁾을 사용할 것이다. 먼저 신바빌로니아 3개 비문을 선택한 이유이다. 이 비문들은 실제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인 520 BCE와 가장 가깝다. 또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신바빌로니아 지역의 신전 재건 기록이라는 점이 선택의 이유이다. 분량적인 측면에서도 학개서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¹⁰⁾. 구데아 실린더는

있지만(나보폴라사르의 바빌론의 Ninhurta신전인 Egidriduntilla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미 수메르 시기부터 전반적으로 새로운 왕이 즉위한 직후 신전 건축 및 재건은 왕조 이데올로기 하에서 필수적인 사항이었고 신전 건축 및 재건은 따라서 왕실비문의 핵심적 사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7) 포로기 이후 성전과 야훼의 임재와의 관계는 이시야 “야훼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제 30집 (2008), 185-198쪽 참조.
- 8) 구데아(Gudea)는 라가쉬(Lagash)의 왕이었다. 그는 통치 시기는 우르 제 3왕조 (2000년대 BCE 말) 시기로 추정된다. 그는 도시의 수호신인 Nigirsu의 Eninnu신전을 건축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실린더 A와 B로 구성된 비문을 제작하였다. COS 2.155 참조. 그리고 T. Jacobsen, *The Harps that Once...: Sumerian Poetry in Transl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7)을 참조하라. 본 논문에서는 최신의 해석을 반영하기 위해 본문을 “The Electronic Text Corpus of Sumerian Literature” (이하 *ETCSL*) <http://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t.2.1.7#>에서 사용하였다.
- 9) 이 세 비문들은 모두 신전 재건에 관한 기록이다. 나보니두스 비문은 시파르(Sippar)의 Ebabbar신전터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556-539 BCE)에 의해 진행된 3개의 신전 재건(rebuilding)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신전은 Ehulhul 재건을, 두 번째는 시파르의 Ebabbar 신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Sippar-Anunitu의 Eulmash신전(Anunītu 여신)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COS 2.123 A). 또한 V. Hurowitz, *I Have Built You an Exalted House: Temple Building in the Bible in Light of Mesopotamian and North West Semitic Writings* (JSOTSup, 1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81-90쪽에서 각 비문의 내용 요약을 참조하라.

신전재건이 아닌 신전건축에 관한 기록이고 시기적으로 학개서의 성전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지만 신전 건립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가장 자세하고 종합적으로 보여준다¹¹⁾. 따라서 주 비교대상을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3개의 비문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동일 항목’ 내에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구데아 실린더를 참조할 것이다.

2. 고대근동 신전 재건의 목적

고대근동에서 신전이 왜 재건되는지에 관한 질문은 신전 재건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신전 재건 기록은 주로 왕실 비문(Royal inscription)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다. 왕실 비문이란 왕이나 왕실에 속한 인물 혹은 고위 관리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다¹²⁾. 이 비문은 왕의 명령이나 왕을 기념하

-
- 10) 신바빌론 왕실비문은 앗시리아 왕들의 비문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왕들의 영웅적 업적에 관한 언급을 거의 배제한다는 점이다. 둘째, 3000년대 BCE에서 앗수르바니팔까지 이어져 왔던 역사 문헌의 가장 큰 특징인 “연대기”적 특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실제적인 신전 건축과 제의에 대한 묘사로 일관한다. 따라서 앗시리아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역사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신바빌로니아 비문들은 건축에 관련한 제의, 건물에 대한 기술, 부속 건물의 존재, 그리고 제의에 사용된 용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전에 대한 종교적 관점 및 건물에 연관된 다양한 관습도 파악할 수 있다. V. Hurowitz, *윳글*, 81쪽. 앗시리아 신전 건축 및 재건 비문은 A. K. Grayson, *Assyrian Royal Inscriptions*, vol. 1, 2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와 D. D. Luckenbill, *Ancient Records of Assyria and Babylonia*, vol. 1, 2 (Lon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Ltd, 1989)을 참조하라.
- 11) 실제로 고대근동의 신전관련 기록은 대부분 ‘재건’에 관한 기록이다. 구데아 본문은 신전재건에만 관련된 절차와 과정이 빠져있지만 그 외의 절차와 항목에 관해서는 신전재건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상세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고자 한다. 처음으로 신전이 건축된다는 측면에서 구데아 본문은 솔로몬 성전 건축과 비교될 수 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신(야훼)의 계시와 수신인으로서의 왕이라는 핵심적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삼하 7장). 하지만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제 2성전에서 계시와 수신인으로서의 왕의 요소가 드러나는가이다. 따라서 논의를 효율성과 목적을 위해 제 2성전 재건과정에만 초점을 두기로 한다.
- 12) J. Lundquist, “The Common Temple Id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T. C. Madsen(ed.) *The Temple in Antiquity: Ancient Records and Modern Perspectives* (Religious Studies Center Monograph Series 9), (Provo: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84), 53-76쪽. 성서에 나타난 성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R. J. Clifford,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HSM 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131-181쪽을 참조하라. 또 이와 비슷하지만 유사한 용어인 건축비문(Building inscription)은 왕실 비문의 한 종류로서 특정 건물을 보수 혹은 신축하면서 건물 건축자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별도로

기 위해 기록된다. 왕실 비문의 주요 내용은 왕이나 주인공의 특별한 업적을 상세하게 찬양하는 것이다. 주로 전쟁에서의 승리, 사냥, 사회적/종교적/법률적 개혁이 그 내용이며 때로 신전 건축이나 재건 같은 공공 건설이 그 내용에 포함되기도 한다¹³⁾. 즉, 신전 재건은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선전(propaganda)인 왕실비문의 일부로써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자신의 즉위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전을 건축 혹은 재건하는 것이다.

왕과 왕조에 대한 선전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전 재건 기록은 사실상 고대 근동의 왕조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전은 신전이 위치한 도시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전은 왕에 의해 건립되고 유지되는 왕실의 제도로서 정치적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행정 기구로서 작용한다. 신전은 국가에 왕이 거주(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며 정치질서와 시민의 안녕에 대한 신적 보호를 보장한다. 그런데 신은 인간 ‘왕’을 통하여 우주적 질서를 세상에 실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왕권 및 국가의 형성과 유지는 신의 의지이다. 신의 대리자로서 지상의 왕은 신으로부터 위임 받은 질서를 세상에 실현한다. 따라서 신전은 왕의 지상 통치를 정당화하는 신의 명령과 의지의 표상인 것이다. 왕이 신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신전이 재건된 도시나 국가의 통치를 신에 의해서 인가 받고 그 정당성을 부여 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거나 왕이 즉위할 때 신전을 건축 혹은 재건하는 행위는 신전이 위치한 도시나 국가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신전은 그러므로 신에 의해 지상 통치를 위임 받은 왕에 의해서 건립되었다¹⁴⁾. 신전 건축/재건의

제작되었다. 건축비문의 특징은 이 비문을 건물과 함께 안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왕실 비문이 건축 비문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축 비문에는 단지 건축자의 특정 건물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업적도 같이 기록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른 업적의 분량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비문의 핵심은 건축에 관련한 사항이다. 왕실 비문이나 건축 비문과 비슷하지만 건축 기사(Building account)란 건축에 관한 짧은 이야기나 운문을 가리킨다. 현재 남아 있는 많은 건축 기사는 건축 비문과는 완전히 다른 문학 장르인 찬양시, 신화, 서사시, 역사기록 등에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왕실비문 내에 있든, 별도의 건축비문이든 아니면 건축기사 이든 신전 재건 비문(혹은 기록)으로 통칭해서 사용할 것이다.

13) E. A. Speiser, "The Idea of History in Ancient Mesopotamia," *Oriental and Biblical Studies, Collected Writings of E. A. Speiser*, J. J. Finkelstein and M. Greenberg(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7), 270-312쪽.

14) 이 언명과 관련하여 ‘아다드 구피(adad guppy)의 자서전’을 주목해보자. 아다드 구피 Stela에는 나보니두스(Nabonidus/ Nabunaid)의 어머니로 주장되는 여인의 Sin에 대한 헌신의 기록을 자서전(autobiography)적으로 담고 있다. 아다드 구피는 Sin이 자신의 아들인 나보니두스를 왕으

주체는 곧 왕인 것이다.

3. 신의 계시

1) 고대근동의 신의 계시

신의 계시라는 항목과 관련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언제 어떻게 신전 재건이 시작되는가이다. 신전 재건의 착수는 반드시 신의 계시를 왕이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신의 계시 혹은 뜻이라는 요소와 왕의 확인이라는 요소이다. 이제 이 두 요소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신의 계시를 인지하게 되는 방식의 종류이다. 고대 근동에서 이 매개체는 주로 ‘꿈’이다. 구테아와 나보니두스 모두 ‘꿈’을 통해 신으로부터 각각 신전을 건립할 것과 몰락한 신전을 재건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날 밤의 환상¹⁵⁾을 통해 구테아는 주 Ningirsu를 보았다.
그는 나에게 신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한 나에게 Eninnu의 영광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마음은 압도당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¹⁶⁾

로 세웠음을 찬양하고 자신의 Sin에 대한 ‘96년’ 동안의 헌신을 기술한다. 그리고 Sin에게 *Ebulbul*을 잊지 말 것과 그 제의(rite)를 복원시킬 것을 간구한다. Sin은 아다드 구피의 헌신과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의 아들 나보니두스가 *Ebulbul*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꿈으로(“...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의 아들 나보나이드에 의해 내가 신들을 하란으로 귀환시킬 것이며, 나보나이드가 *Ebulbul*을 재건하고 그가 그 공사를 완성할 것이다...”)알려준다 (COS 1.147: 477-478). 이 기록은 마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제안했으나 실제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이루어진 성서의 기록과 유비된다. M. D. Dick,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Neo-Babylonian Succession Apologies,” in *David and Zion: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J. J. M. Roberts* (ed. B. F. Batto & K. L. Robert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4), 3-19쪽. 텍스트와 번역은 C. J. Gadd, “The Harran Inscriptions of Nabonidus,” *AnSt* 8 (1958): 35-92쪽; *ANET* 560-562 및 위 COS를 참조하라. 결국 아다드 구피의 자서전도 신전 건축의 주인공을 자신의 아들인 나보니두스로 지목한다. 나보니두스 자신도 자신의 비문(I 16-17)에서 꿈을 통하여 Sin신전 재건을 명령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나보니두스는 자신의 Sin에 대한 헌신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것임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Adad guppi자서전을 기획했다고 말할 수 있다.

15) Sum. *maš-gi* “night vision”으로 꿈을 뜻하는 ma-mu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모두 Akk. 의 꿈을 뜻하는 *šuttu*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COS 2.115, n7. 419쪽.

16) Cyl. A i.15-21 COS 2.155. 또한 The Electronic Text Corpus of Sumerian Literature (이하 ETCSL) <http://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t.2.1.7#17-23>. 이곳에 구테아 실

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던 초기에 그들(신들)은 나에게 꿈을 보내었다.
 위대한 주인 마르둑과 하늘과
 지하세계의 빛나는 존재인 신(Sin)이 같이 서 있었다.
 마르둑은 내게 ‘나보디두스,’ 바빌론의 왕이여,
 네 마차로 벽돌을 가져다 Ebulhul¹⁷⁾을 재건하라.
 그리하여 위대한 주인 신으로 하여금
 그곳을 자신의 거처(residence)로 만들게 하라¹⁸⁾.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왕이 이 계시를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구테아와 나보디두스 모두 이 꿈을 처음부터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신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 작업이 요구되었다. 구테아의 경우 이 꿈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으며¹⁹⁾ 조언자를 찾아 그 꿈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Nanshe라는 여인²⁰⁾을 찾아가 그 꿈의 의미에 대해 질의한다²¹⁾. 이에 대해 Nanshe는 구테아의 꿈을 설명해준다. Nanshe는 특히 나무와 새에 관한 해석을 내놓았다. “달콤한 수면(sweet sleep)이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 작업을 수행하라는 것이다²²⁾. 또한 당나귀에 관한 부분도 유사한 해석을 담고 있다. 강한 당나귀가 땅을 파헤치듯이 공사를 열의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Nanshe는 이어 구테아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한다(Cyl. A vi. 14-vii. 8). 그 내용은 자신의 창고로 가서 목재를 끄집어내어 Ningirsu에게 바칠 전차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 전차는 꿈에서 본 나무로 만들고 라피즈 라줄리를 비롯한 귀한 보석으로 치장하여야 한다. 또한 당나귀로 하여금 끌게 될 것이다. 이 전차를 완성하여 Ningirsu에게 바치게 되면 그가 구테아에게 신전의 구체적인 설계도면 혹은 계획(gis-hur)을 알려주게 될

린더 전체 번역본 및 원문이 올라와있다.

17) Harran에 있는 신(Sin)의 신전을 의미함.

18) COS 2. 123A (i. 8-ii. 25), 311쪽. 나보디두스는 신(Sin)과 마르둑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n. 4 참조).

19) Sum. *ša-ga-nisud-rá-àm*(lit. “his heart being distant”). n. 10.

20) 구테아는 그녀를 Sirara의 여신이며, 자신의 누이로, 그리고 어머니이자 꿈 해몽가로 부르고 있다. Sirara의 제사장을 통해 Nanshe의 해몽을 받은 것 같다. ETCSL 24-32.

21) 요셉 당시의 바로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역시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창 41: 8, 단 2: 1-4, 10-13절).

22) 학 1장 8절의 나무를 이와 연관시킬 수 없을까? 예루살렘에는 성전건축에 사용할 나무가 어차피 없기 때문이다. 시 132편 2-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위한 노고를 잊지 말라고 기도한다.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Ningirsu에 선물로 바친 전차를 통해 구데아는 신전에서 꿈을 잉태(incubate)하기 위해 여러 날을 자내게 된다(Cyl. A viii-ix4). 여기서 구데아는 자신이 기꺼이 신전을 건축하겠지만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징조(giskim, signal; akk.Ittu)를 요청한다(viii. 19). 이에 대해 Ningirsu는 다시 구데아의 꿈에 나타나 그가 짓게 될 신전의 모습을 기술함과 동시에 징조로서 땅의 축복을 약속한다. Ningirsu는 계속해서 자신이 산으로 발을 돌려 그곳으로부터 바람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마음에 힘(vigor/fortitude)을 주어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작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자신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나무들과 돌을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할 것이다(xi. 20-xii.9). 마지막으로 Ningirsu는 “그날 내가 불로 네 팔을 만지게 될 때, 너는 그것이 나의 징조임을 알게 될 것이다(xii.10)”며 말을 마친다²³⁾. 그는 깨어나자마자 희생제물의 간 검사(extispicy)를 통해 그 계시가 우호적인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느부갓네살 2세의 에바바르 신전 재건 비문에 의하면 마르둑이 “네 개의 바람을 일으켜 (폐허화 된) 신전터 위에 쌓여 있던 모래를 걷어내어 기반 구조가 드러나게 해 주었다.”(COS2.122, i.7-ii.11). 나보니두스의 시파르 실린더는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한 징조가 기록되어 있다. 하란에 신(Sin)을 위한 Ebulhul을 재건하라는 마르둑의 지시에 대해 나보니두스는 현재 그 장소가 메대(Mede)에 의해 포위되어 있으며, 메대의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변명하였다. 이에 마르둑은 나보니두스에게 메대와 그 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위 3년 쯤, 안산의 왕, 고레스(Cynus)가 일어나 메대를 치고 아스티아게스를 사로잡았다²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보니두스는 본격적인 신전 재건에 착수하게 되었다(COS2. 123A, i.8-ii.25).

이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대근동에서 신전 재건과 관련하여 신의 계시와 ‘징조’가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신의 계시는 궁극적으로 ‘왕’에게 전달된다²⁵⁾. 이는 신전 재건이 오직 왕에게만 부여된 의무라는 사실을

23) T. Jacobsen은 이 구절을 수메르어 á가‘팍’ 혹은 ‘경계’(border)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불에 의한 신전터의 정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T. Jacobsen, *The Harp That Once...: Sumerian Poetry in Trans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7), 403쪽.

24) 이때까지만 해도 고레스는 나보니두스와 동맹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25) 계시가 제3자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징조는 전문가들이 해석할 수 있지만 신의 계시의 궁극적인

보여주고 있다²⁶). 둘째,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계시를 징조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도 왕은 주로 꿈을 통해 재차 신의 계시를 확인한다. 구데아의 경우 제의적 과정(꿈 잉태 및 희생제의 검시)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때 Narshe 제사장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느부갓네살 2세의 경우 다시금 꿈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때 점성가들의 해석에 의지했을 것이다. 나보니두스는 특이하게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통해 신의 계시를 확인하였다²⁷). 결론적으로 고대근동에서의 신전 재건은 왕이 신으로부터 직/간접 계시를 받고 '징조'를 통한 확인을 거친 후에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학개서의 야훼의 계시

(1) 야훼의 계시

고대근동의 기록과 비교함으로써 드러나는 학개서²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곧 이 책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야훼의 메시지가 예후드²⁹)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분명히 전달 선포되었음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1: 1, 8, 또한 1: 12; 2: 2, 4). 즉, 이 책은 성전재건이 야훼의 뜻이며, 유다의 지도자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정당함을 밝히고 있다. 고대 근동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 재건의 시작은 i) 신의 계시 혹은 명령, ii) 계시의 전달, iii) 수신인으로서의 왕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신으로부터의 분명한 계시가 없이 자의적으로 시작되는

도착지점은 왕이라는 의미이다.

26) 이런 의미에서 고대근동에서 신전 건립/재건의 주체는 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A. Hurowitz, *I Have Built You an Exalted House: Temple Building in the Bible in Light of Mesopotamian and North West Semitic Writings*, 332-334쪽. 또한 시 78: 69; 127: 1도 마찬가지다.

27) 또한 어머니 Adad guppi의 꿈을 통해서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COS 1.147: 477-478쪽).

28) 본 논문에서 참조한 학개서에 대한 최신의 주해서는 J. Kessler, *The Book of Haggai: Prophecy and Society in Early Persian Yehud* (VTSup 91; Leiden: Brill, 2002)이다.

29) 페르시아 시대 유대의 지명.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시대 다리우스에 관해서는 P. Briant, *From Cyrus to Alexander: A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2), 165-203쪽; L. Grabbe,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 Vol. One: The Persian and Greek Period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를 참조.

경우가 없다. 히브리 성서 가운데 이 점을 분명히 밝힌 책은 학개서가 유일하다. 학개서는 아훼의 계시가 있었으며(1: 1), 이 계시가 예언자의 예언행위를 통해 전달되었고(1: 1-3), 계시의 수신인이 스룹바벨(다윗 왕가 계보에 속하는 예후드 총독³⁰)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1: 1, 12; 2: 1, 21). 이러한 점은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서내의 다른 평행 본문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에스라서는 아훼의 계시가 제국의 황제인 키루스³¹)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고한다(스 1: 1).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지시가 이방의 황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신학적 논리상, 재건될 예루살렘의 성전이 페르시아의 신전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감행한 것은 저술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에스라의 목적은 대외적인 것이다. 제국의 직접적 영향보다도 주변속국의 견제가 실질적인 정황(스 4장 - 6: 15)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법리적 정치적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키루스 관련 언명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예언의 수신인을 제국의 황제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에스라에서는 계시의 전달과정과 수단이 드러나지 않는다.

학개와 동시대의 기록인 스기라서(1-8장) 역시 마찬가지다. 성전재건과 관련한 본문(1: 16, 17; 4: 9; 6: 15)은 이미 성전재건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성전재건을 시작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³²).

이들과 비교할 때 학개서는 예후드의 유다 공동체를 향한 선포이다. 즉, i)

30) 스룹바벨에 관한 가장 대표적 논의는 Sara Japhet, "Sheshbazzar and Zerubbabel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Historical and Religious Tendencies of Ezra-Nehemiah," *ZAW* 94 (1982), 66-98쪽을 참조하라. 특히 학개서와 관련하여 76-78쪽에 논의되어 있다. 또한 야벳은 스룹바벨이 초기 페르시아 시대에 예후드의 총독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Kessler, "Haggai, Zerubbabel, and the Political Status of Yehud: The Signet Ring in Haggai 2:23," M. H. Floyd/R. D. Haak(eds.), *Prophets, Prophecy, and Prophetic Texts in Second Temple Judaism* (New York & London: T&T Clark, 2006), 102-119쪽을 보라. 특히 케슬러는 학개가 스룹바벨을 다윗왕가의 잠재적 후계자로 인정했지만 왜 과감하게 나타내지 않았는지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31)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 제외에 관한 태도와 정책에 관해서는 A. Kuhrt, "The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JSTOT* 25 (1983), 83-97쪽을 참조. 또한 이 시기 유대 역사에 관해서는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구약논단』 제 29집 (2008), 113-137쪽을 참조.

32) 또한 에스겔서의 미래성전에 대한 환상본문(40-48장) 역시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줄 뿐이다. 성전에 대한 '양식(출 25: 9)'일 수 있으나, 재건 지시가 결여되었고, 수신인이 적합하지 않다.

야훼의 계시가, ii) 정당한 수신인(건축자)에게 iii) 예언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재건을 시작해야한다. 따라서 그 성전은 야훼의 성전이다.

(2) 날짜 형식구(formula)

학개서를 다른 예언서와 구별 짓는 특징 중의 하나는 매우 짧은 본문 내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총 6회의 날짜 형식구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1: 1, 15; 2: 1, 10, 18, 20).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학개의 예언은 다리우스 2년 6월 1일에 시작하여(1: 1) 같은 해와 9월 24일(2: 18, 20)에 종료되었다. 즉,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예언활동과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다. 히브리 예언서 전체를 통틀어 이런 방식, 즉, 짧은 기간 내에 가장 상세한 날짜 형식구(연도, 달, 그리고 날짜)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예언을 수행한 유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³³⁾. 예언 선포와 관련된 날짜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양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날짜 형식구를 통하여 i) 예언이 단기간에 집중되었으며, ii) 각 날짜 별로 상이한 메시지가 아닌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살펴본 고대근동의 신전재건 과정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학개는 예언 선포의 구체적인 시점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계시의 신빙성과 정당성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³⁴⁾. 성전재건에 관한 야훼의 메시지가 예언자를 통해 ‘왕에

33)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히브리 전체 예언서 가운데 이와 가장 유사한 방식, 즉, 연도, 특정 달, 날짜를 프레임으로 예언을 선포한 사례는 동시대의 스가라서를 제외하고는 겔 29-32절의 이집트에 대한 신탁에서만 나타난다. 이 예언은 10년 10째 달 12일에서 시작하여(29: 1) 12년 12째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사이에 11년 첫째 달 7일(30: 20), 11년 3째 달 초하루(31: 1)가 등장하지만 27년 첫째 달 초하루(29: 17)가 개입됨으로써 일련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스가라서(1: 1, 7; 7: 1)의 경우 학개서보다 분량에 비해 빈도수도 적을뿐더러(3회), 종교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달도 아니고(1: 1 여덟째, 1: 7 열한째, 7: 1 아홉째), 예언의 기간도 2년(다리우스) 여덟째에서 4년 아홉째 달까지 총 2년에 걸친 예언을 수록함으로써 긴급성과 확실성의 측면에서 긴장도가 떨어진다. 또한 4개월 내에 동일한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있는 학개와 달리 스가라의 예언은 각 날짜 별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34) H. W. Wolff, *Haggai: A Commentary*, M. Kohl(Tran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33쪽)은 날짜를 동반한 메시지 양식의 반복을 별개의 예언이 수집된 것으로 이해하고, M. J. Boda, "Haggai, Master Rhetorician," *TynB* 51 (2000, 295-304쪽)는 '위기'의 시대에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의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학개서가 지닌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지엽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학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이전에 학개 든 혹은 누군가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된 듯하다(1: 2)³⁵. 하지만 그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1: 2)³⁶. 학개의 선포는 바로 이러한 정황 가운데 성전 재건 여부에 관한 야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이전에 전달된 계시가 유효하고 확실하며 지체되지 말고 실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주장하는 것이다³⁷. 야훼의 메시지, 특히 성전 재건과 관련한 야훼의 계시는 거듭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근동의 왕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학개는 자신이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진정한 것이고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긴박한 성격을 지닌 것임을 날짜 형식구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예언의 수신인 스룹바벨

학개 예언의 대상, 즉, 청중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의 계시의 정당성, 성전 재건에 관한 계시를 궁극적으로 누가 수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학개는 자신의 예언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35) 이 점은 페르시아 제국내의 예후드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룹바벨만을 단독으로 지목하여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혹 이전의 메시지는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고레스 조서(1: 1-3; 6: 3-5[아람어 버전])를 가리키는 것일까?

36)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제시된다. 첫째, 자연재해로 야기된 경제적 궁핍; H. W. Wolff, *윳골*, 41쪽; J. Kessler, *The Book of Haggai: Prophecy and Society in Early Persian Yehud* (VTSup, 19), (Leiden: E. J. Brill, 2002), 126쪽. 둘째,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파괴 이후 70년의 시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다는 신학적 주장이 그것이다. C. L. Meyers/E. M. Meyers, *Haggai, Zechariah 1-8* (AB, 25B), (New York: Doubleday, 1987), 20쪽; P. R. Bedford, "Discerning the Time: Haggai, Zechariah and the 'Delay' in the Rebuilding of the Jerusalem Temple," S. W. Holloway/L. K. Handy (eds.) *The Pitcher is Broken: Memorial Essay for Gösta W. Ahlstrom*, (JSOTSup, 19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8-82쪽; H. Tadmor, "'The Appointed Time Has Not Yet Arriv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Haggai 1: 2," R. Chazan, W. W. Hallo, L. H. Schiffman(eds.) *Ki Baruch Hu: Ancient Near Eastern, Biblical, and Judaic Studies in Honor of Baruch A. Levine* (Winona Lake: Eisenbrauns, 1999), 401-408쪽.

37) 선포된 사회적 정황(1: 6, 9-11)이 자연재해에 의해 예후드가 경제적으로 파탄해 있었다는 사실은 학개 선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갖는다. 성전재건을 통해 주어지는 경제적 풍요의 약속과 뚜렷이 대비되는 극적인 효과를 낳는다.

선포했지만(1: 1) 그 선포에 반응한 청중은 이 둘 외에도 백성들이 포함된다(1: 13). 즉, 선포의 대상은 스투바벨과 여호수아였지만 반응자는 스투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었다. 이러한 모순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해결된다. 학개는 두 번째 선포에서 스투바벨과 여호수아 뿐 아니라 백성을 선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2: 1) 아훼의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지도자를 포함한 유다 백성 전체에게 향한 것임을 확인시킨다. 하지만 결론부에서는 오직 '스투바벨'만을 부각시킴으로(2: 20-23) 계시의 순종이 스투바벨의 미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³⁸⁾. 이와 같은 예언 선포의 대상은 고대근동의 신전재건 과정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고대근동에서 신전재건과 관련하여 계시의 수신인은 오직 왕이다. 계시는 오직 왕에게만 전달되며, 제사장 및 제의를 담당하는 관리들은 그 계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에 머문다. 신전재건 여부와 관련한 결정에서 백성들의 역할은 배제된다. 신전은 본질적으로 신의 계시를 받아 왕이 짓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이스라엘도 본질상 다르지 않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 예후드 사회는 이러한 본질적 측면이 충족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왕이 부재한 상황에서 누가 예언 혹은 계시의 수신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학개의 접근은 매우 신중하다. 표면적으로는 모호해 보인다. 나아가 첫 번째 계시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가 전달된 이후에 발생한 공동체의 반응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학개서는 전개되고 있다(1: 2). 계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수신인의 정체성을 고대근동의 사상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고대근동의 신전재건에 관한 신의 계시의 담지자는 오로지 왕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관 하에서 우리는 학개 혹은 미지의 예언자를 통한 성전재건의 계시를 오직 한 사람, 즉, 스투바벨이 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개 선포 이전에 이미 성전재건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었다(1: 2). 둘째, 이 선포의 수신인은 스투바벨이었다(2: 21-23). 셋째, 하지만 스투바벨은 이 예언에 대해 회의적이었

38) 이 점에서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난 스투바벨에 대한 묘사와 대비되고 있다. 학개서가 예언의 수신인이자 정당한 성전 건축자로서의 스투바벨의 지위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에스라/느헤미야는 유다 주변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을 수행하는 총독으로서의 지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다른 고대근동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를 공유했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1: 1). 그는 백성들의 경제적 고통과 회의적 반응을 회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1: 2)³⁹⁾. 이런 상황에서 예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스룹바벨은 재차 이 문제에 대한 야훼의 뜻을 물었을 것이고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이 학개서인 것이다. 대제사장과 백성이 이 예언에 포함된 이유는 i) 스룹바벨에게 전달되었던 본래 예언(성전 재건에 관한 첫 예언)이 학개가 확인 예언을 전달(학개서)하는 시점 전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개되었음을 나타내고, ii) 이에 대해 모두가 회의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학개의 선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야훼의 메시지를 재차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제 학개는 자신의 선포가 본질상 누구에게 향한 것이었는지를 뚜렷이 드러낸다(2: 21-23). 오직 스룹바벨에게만 야훼의 축복을 선포하며 성전건축의 주체로 부각시킨다⁴⁰⁾. 학개에게 있어서도 고대근동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성전건축의 주체는 '왕인' 것이다. 학개 선포의 대상은 스룹바벨이었다.

4. 요약 및 결론

고대근동에서 신전의 건축 혹은 재건은 왕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고대근동의 일부로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 성전의 재건이 고대근동의 신전재건의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전 재건은 신의 계시로부터 시작한다. 이 계시는 꿈이나 예언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직/간접으로 왕에게 전달되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예언자의 선포를 통해

39)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 학개의 선포에 대해 스룹바벨이 자신의 회의감과 더불어 백성들의 반응을 대변하여 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성의 반응을 전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설명은 J. Kessler, *The Book of Haggai: Prophecy and Society in Early Persian Yehud*, 103-157쪽을, 특히 109쪽의 각주 51을 보라.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개가 ‘의도적으로’ 스룹바벨과 예후드의 정치적 미래를 모호하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Kessler, “Haggai, Zerubbabel, and the Political Status of Yehud: The Signet Ring in Haggai 2:23,” 102-119쪽을 보라. 야벳 역시 스룹바벨의 역할을 단지 ‘암시’만 했다고 주장한다. Sara Japhet, “Sheshbazzar and Zerubbabel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Historical and Religious Tendencies of Ezra-Nehemiah,” 66-98쪽. 이러한 절제되고 소박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Wolff에 의하면 스룹바벨은 예후드의 “희망을 담지한 인물(persönlichen hoffnungsträger)”이었다. Wolff, 윗글, 108쪽.

야훼의 계시를 전달하였다.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예후드의 경우 야훼의 계시는 다윗 왕가에 속한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달되었다. 왕은 신의 계시를 다양한 제의적 수단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스라엘은 거듭된 예언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렇듯 성전 재건에 관한 i) 야훼의 계시가 ii) 예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iii) 다윗 왕조의 잠재적 계승자인 스룹바벨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입증하려는 것이 학개서의 목적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입증한 책은 구약에서 학개서가 '유일'하다. 학개서는 이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에 재건될 성전이 '야훼'의 성전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학개에서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한 주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다리우스가 아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신도 아니다. 그럴 경우 예루살렘 성전은 페르시아 신의 신전이요 고레스나 다리우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야훼 계시의 궁극적인 수신인은 다윗 왕가의 잠재적 후계자인 스룹바벨이 되어야 한다. 야훼 왕권의 지상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반드시 유다의 왕 혹은 왕위 계승자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개서는 고대근동의 성전 건축과 재건에 관한 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개는 왜 뚜렷이 스룹바벨을 수신인으로 제시하지 않고 후반부에 가서야 모호한 언어로 처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스룹바벨의 정치적 한계에서 찾아야 한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임 동시에 페르시아에 의해 유다에 파견된 총독이었다. 자명하게 수신인으로 내세울 경우 그것은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을 의미한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통해 페르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학개가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 왕조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지만(2: 23) 그렇다고 이 예언이 페르시아나 주변국에 대한 반란과 독립으로 비취질 가망성을 배제시키지 않는다. 이 목적을 위해 학개는 스룹바벨을 향해 포로기 이전 왕조 이데올로기인 야훼 왕권 사상(2: 6-9, 21-23)을 '모호한 언어'로 현사한다. 이 사상은 민족신 개념이 편만한 고대근동 세계에서 흔한 메타포였기에 주변국 및 페르시아에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학개의 성전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일환이라는 주장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성전이 '야훼'의 성전이라는 학개의 궁극적 주장에서 페르시아 제국 관련성 가설은 효력을 상실한다. 결국 학개는 자신이 주장하고 싶었던 신학적 명제를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 민 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구약논단』 제 29집 (2008), 113-137쪽.
- 이 사야, “야훼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제 30집 (2008), 185-198쪽.
- Ackroyd, P. R., *Exile and Restoration: A Study of Hebrew Thought of the Sixth Century B. C.* (London: SCM, 1968).
- Averbeck, Richard E., “Sumer, the Bible, and Comparative Method: Historiography and Temple Building,” *Mesopotamia and the Bible*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 Barstard, H., “Haggai Among the Prophets: An Example of Prophetic Continuity in the Hebrew Bible,” M. Bar-Asher, E. Tov, D. Rom-Shilony, and N. Wazana(ed s.) *Sara Japhet Festschrift*, (Jerusalem: Bialik Institute, 2007), 265-283쪽.
- Bedford, P. R., *Temple Restoration in Early Achaemenid Judah*, (Leiden: Brill, 2001), 185-237쪽.,
- , “Discerning the Time: Haggai, Zechariah and the ‘Delay’ in the Rebuilding of the Jerusalem Temple,” S. W. Holloway/L. K. Handy(eds.), *The Pitcher is Broken: Memorial Essay for Gösta W. Ahlstrom*, (JSOTSup 19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Boda, M. J., “Haggai, Master Rhetorician,” *TynB* 51 (2000), 295-304쪽.
- Briant, P., *From Cyrus to Alexander: A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Winona Lake: Eisenbrauns, 2002).
- Clifford, R. J.,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HSM 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Dick, M. D.,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Neo-Babylonian Succession Apologies,” B. F. Batto/K. L. Roberts(eds.), *David and Zion: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J. J. M. Roberts*, (Winona Lake: Eisenbrauns, 2004).
- Floyd, M. H./Haak, R. D.(eds.), *Prophets, Prophecy, and Prophetic Texts in Second Temples Judaism*, (London: T&T Clark, 2006), 102-119쪽.
- Gadd, C. J., “The Harran Inscriptions of Nabonidus,” *AnSt* 8 (1958), 35-92쪽.
- Grabbe, L.,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 Vol. One: The Persian and Greek Period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Grayson, A. K., *Assyrian Royal Inscriptions, Vol. 1&2*,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2).
- Holloway, S. W./Handy, L. K.(eds.), *The Pitcher is Broken: Memorial Essay for Gösta W. Ahlstrom*, (JSOTSup, 19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Hurowitz, V., *I Have Built You an Exalted House: Temple Building in the Bible in Light of Mesopotamian and North West Semitic Writings*, (JSOTSup,1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Japhet, S., "Sheshbazzar and Zerubbabel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Historical and Religious Tendencies of Ezra–Nehemiah," *ZAW* 94 (1982), 66–98쪽.
- Jacobsen, T., *The Harps that Once...: Sumerian Poetry in Transl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7).
- Kessler, J., *The Book of Haggai: Prophecy and Society in Early Persian Yehud*, (VTSup 91), (Leiden: Brill, 2002).
- , "Haggai, Zerubbabel, and the Political Status of Yehud: The Signet Ring in Haggai 2:23," M. H. Floyd and R. D. Haak(eds.), *Prophets, Prophecy, and Prophetic Texts in Second Temples Judaism*, (New York & London: T&T Clark, 2006).
- Kuhrt, A., "The Cyrus Cylinder and Achaemenid Imperial Policy," *JSOT* 25 (1983), 83–97쪽.
- Luckenbill, D. D., *Ancient Records of Assyria and Babylonia Vol. 1&2*, (Lon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Ltd., 1989)
- Lundquist, J., "The Common Temple Id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T. C. Madsen(ed.), *The Temple in Antiquity: Ancient Records and Modern Perspective* (Religious Studies Center Monograph Series 9), (Provo: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84).
- Meyers, C. L./Meyers, E. M., *Haggai, Zechariah 1–8* (AB, 25B), (New York: Doubleday, 1987).
- Morgenstern, J., "Two Prophecies from 520–516 B. C." *HUCA* 22 (1949).
- Olmstead, A. T.,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135–142쪽.
- Peterson, D. L., *Haggai and Zechariah 1–8: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 Speiser, E. A., "The Idea of History in Ancient Mesopotamia," J. J. Finkelstein/M. Greenberg(ed.), *Oriental and Biblical Studies, Collected Writings of E. A. Speise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7).
- Tadmor, H., "‘The Appointed Time Has Not Yet Arriv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Haggai 1:2," R. Chazan, W., W. Hallo, L. H. Schiffman(eds.), *Ki Baruch Hu: Ancient Near Eastern, Biblical, and Judaic Studies in Honor of Baruch A. Levine*,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9).
- Weinberg, J. P., *The Citizen–Temple Community*, Trans. by D. L. Smith Christopher (*JSOTSup* 15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Wolff, H. W., *Haggai: A Commentary*, M. Kohl (tran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The Electronic Text Corpus of Sumerian Literature (ETCSL)
<http://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t.2.1.7#>

검색어

구데아 실린더
나보니두스 비문
느부갓네살 2세 비문
나보폴라사르 비문
학개서
계시
스룹바벨

The Purpose of Haggai in light of ‘Revelation,’ ANE’s Temple Rebuilding Ideology

Woo-Chul Shin, Ph. D.

Lecturer at Yonsei University, Seoul

Yonsei University

The research problem concerns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temple rebuilding records between Ancient Near East and Ancient Israel in light of god’s revelation. Both regions have left numerous temple rebuilding records:

among others, three major building inscriptions as for Neo Babylonia contemporaneously during the 6th century BCE (Nabopolassar's, Nebucadnezzar II's, and Nabonidus') and Gudea cylinders (A&B) as for the ancient Mesopotamia in the 3rd Millennium; in ancient Israel there were so-called 2nd temple reconstruction records in OT, especially the Book of Haggai will be dealt with for this research. The significant ideological relationship is expected to shed a new light to some interpretational aspects of Haggai, widely presumed to be one of the major historiographical sources in Ancient Israel. Especially the following questions are put in order in regards to Haggai: first, who was the primary incipient of Haggai's message; second, who would be the legitimate temple rebuilders of the Jerusalem temple in the Persian period, third and last, what was the purpose of book of Haggai in connection with the aforementioned questions.

The research showed that a king was the ultimate recipient of a revelation in regard to projected temple rebuilding in Ancient Near East as well as in Israel. It is by no means a surprise considering the long standing tradition in terms of divine-king ideology in this civilization. This in turn points to the strong indication that a would-be recipient of YHWH's message to rebuild the temple in Jerusalem should be none other than the person of Zerubbabel, then Persia-appointed governor over Judah and Jerusalem. This conclusion has much to do with the purpose of book of Haggai itself. Haggai will be the only book in OT which illustrates that the rebuilt temple in the Persian-period Judah was the temple of YHWH, not the temple of a Persian god. YHWH had revealed his intention to build his temple in Jerusalem to his sole deputy on earth, the prospective carrier of kingship in Judah.

Haggai successfully ushers in a new phase of history in Ancient Israel by officially declaring cessation from the past; his people and the nation at large are once again set to enter into a new relationship with YHWH. Haggai is diplomatically skillful in that his aspiration for a restored Davidic dynasty is described in somewhat sophisticated prophetic oracles towards the nations

as well as towards Zerubbabel.

Key Words

Neo Babylonian Building Inscriptions

Gudea Cylinder

Book of Haggai

King, as Recipient of Revelation

Legitimate Temple Builder

■투고일: 2011년 3월 6일

■심사일: 2011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8일